

[종합·해설]

1·19 개각 광주·전남 또 외면...‘멀어진 소통’

非 실세 장관 둘·차관 넷 남아
‘빅4’ 청와대도 호남 인맥 배제

“지역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중앙 부처와 소통할 루트 확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19일 개각 결과를 두고 광주·전남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광주·전남 지역 인맥은 외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급 인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중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 및 차관급 인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광주·전남

지역의 소통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관급 인사=이번 개각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장관, 통일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등 4명이 교체됐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중용되지 않았다. 다만 전북 고장 출신의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

(17명)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기준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담양)과 장래평 농식품부 장관(무안) 등 2명을 유지하는데 그치게 됐다.

특히,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소위 ‘실세 장관’에 지역 출신이 배제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차관급 인사=이번 개각에서 차관 및 차관급은 15명이나 교체됐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인맥은 기존에 비해 악화됐다는 평가다.

우선 기준의 광주·전남 지역 출신 차관은 배국환 재정부 2차관, 박종구 교과부 2차관, 정남준 행안부 2차관, 김종천 국방부 차관, 문성우 법무부 차관, 이재훈 지경부 2차관 등 모두 6명.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박종구 교과부 2차관과 정남준 행안부 2차관, 이재훈 지경부 2차관 등이 자리에서 물려났고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이귀남 대구고검 검사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기용되는데 그쳤다.

단순 숫자 상으로도 지역 출신 차관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행안부, 교과부, 지경부 등 중요 부처 차관 자리에서도 물려나 지역 인맥이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및 권력기관장 인사=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각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번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는 충북 출신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8명의 수석 비서관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이 유일하다.

여기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 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장도 호남 출신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관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배려가 매우 인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중앙 부처의 호남 인맥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평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전남 출신 신임 차관 프로필

공안·중수부장 거쳐...다방면 탁월한 능력



이귀남 법무차관

적극적이고 온화하며 집념이 강한 성품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신망이 뛰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검 공안·중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의가 바르고 열린 자세로 상대를 대해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58)
▲인창고
▲고려대 법대
(사시 22회)
▲해남지청장
▲대검 중수3

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구지검 1차장 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해운항만 분야 외길...조직장악력 뛰어나



최장현 국토부 2차관

해운항만분야에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정통 관료. 업무 파악과 조직 장악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차관보까지 지내 행정 능력도 갖췄다.

▲광주(53)
▲고려대 경영학과(행정고시 21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운물류국장 ▲해양정책본부장
▲한국컨부두공단 이사장

전문성·충성도·경륜 균형잡기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두 번째 개각 명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성과 천정체계를 동시에 강화한 데 있다.

‘경제팀’ 중심의 장관급 인사에서는 정통관료를 주로 발탁한 반면, 차관급 인사에는 실무관료와 함께 젊은 측근들을 과감히 중용해 적절히 균형을 맞춘 것.

하지만 18일 단행된 사정기관장 인사에서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발탁하는 등 최근 위주 인사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표적 복심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각각 차관으로 내각에 합류시킴에 따라 천정체계 구축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장 크게 신경썼다고 한다. 경제팀을 개편하는 것인 만큼 시장의 신뢰가 두터운 정통관료 가운데 적임자를 찾는 동시에 ‘흠’이 없는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3기 내각이 출범하기도 전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이 차질 끊겨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장관에 내정된 윤종현 전 금융

감독원장의 경우 시장 경제주의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시장에서도 나름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진동수 한 국수출입은행장 역시 시장의 신망이 두터운 정통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행안부 장관을 제외한 3기 내각의 학벌을 보면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와 중앙대가 각각 2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그밖에 연세대와 육사, 조선대, 영남대 각 1명이었다. 국무총리실장 및 금융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포함해 서울대가 2명 늘어난 8명, 중앙대가 1명 증가한 3명이 된다.

/연합뉴스

신임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

금융 요직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윤증현 재정

특히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 청와대 386세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경남 마산(63) ▲서울고

서울대 법대 ▲미국 워스콘신 대학원 ▲세무대학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정부 대북정책 입안한 보수성향 학자

현인택 통일

아와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데 적임자라는 평이다.

▲제주(55)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과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칼리포니아대(UCLA) 국제정치학 박사 ▲사회과학원 연구위원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위원

국내외 학계에 두루 친분을 쌓

환란 후 국가신용등급 끌어올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다. 특히 IMF 관리체제 졸업 후인 2002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을 맡아 국가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 영천(60) ▲서울대 경제학과 ▲재경원 교육예산과장

증권제도담당관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 ▲재경부 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국제금융 해박한 정통 재무관료

진동수 금융위원장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제 금융흐름에 대한 맥을 잘

짚고 판단이 빨라 위기 대응에 탁월하고 추진력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재무부 시절에 금융실명제 실시단 총괄장을 맡기도 했다. 조직 장악과

▲전북 고창(59) ▲경북고 서울대 법대 ▲대통령 금융비서관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제23대 조달청장 ▲재정경제부 2차관 ▲한국수출입은행 행장